

日本語 敬語誤用과 그 要因分析*

— 敬語新聞記事에 나타난 場面을 중심으로 —

李 夏 子**

目 次

- I. 序論
 - II. 敬語誤用과 敬語意識, 場面
 - III. 場面別 敬語誤用の 具体例
 - IV. 敬語誤用の 要因分析
 - IV.1. 敬語의 形態上的 誤用과 要因分析
 - IV.2. 個人의 許容度에 의한 混亂과 要因分析
 - V. 結論
-

I. 序 論

일본신문의 경어오용에 대한 기사내용이나 투고자의 경어혼란에 대한 투고자의식 또한 그 시대의 경어의식을 가장 잘 반영하는 매체이기에 본 논문의 연구 목표인 일본인의 경어오용의 요인 분석에 가장 적합한 자료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일본어의 경어의 규범의식에 위반되는 신문기사 속의 경어혼란의 지적이나 논쟁들의 요인이 어디에 있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현대 일본인의 경어오용을 통한 경어의식의 파악에 목표가 있다고 하겠다.

경어의 誤用에서 경어의 혼란이 발생하고 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 혼란의 양상을 빈번히 사용하게 되면 慣用으로 정착하게 되어 시간이 지나면 正用으로 된다. 辻村는 경어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변하여 가는 것으로 하나의 형식이 영원 불변의 규범성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과연 현대의 경어는 어떠한 혼란의 변화가 일어나며,

* 이 논문은 2003년 순천대학교 학술연구비 공모과제로 연구되었음

** 순천대학교 부교수 일본어교육

1) 이에 대한 연구에는 辻村敏樹의 『現代の敬語』(1967) 井上史雄의 「誤用の社會學」(『月刊言語』Vol.12 1983) 『言葉づかい新風景』(1989) 등이 나오고 있다.

경어의 혼란의 요인은 어디에 있는 지가 의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 경어의 오용에 관련된 신문기사를 가정 학교 사회의 3장면으로 세분하여 대상 인물들간의 관계를 통해서 경어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50년부터 1996년까지의 경어에 관련된 신문기사이며 수집대상이 된 신문은 一般紙 8紙(朝日 毎日 讀賣 産経 日経의 全國紙와 北海道 東京 西日本の 地方紙)이다.

II. 敬語誤用과 敬語意識, 場面

현대의 경어의식의 기준은 불확실하기에 경어의식을 논하기란 무척 어렵다. 하지만 현대의 경어가 실제로 존재하는한, 오늘날 그 의식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어의식의 규범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그 규범으로 辻村는 「과거의 경어의식의 기본적인 것」으로 다음의 6종류를 들고 있다.

- 1) 자타의 구별의식 2) 주체경어의식 3) 관계경어의식 4) 겸손의식 5) 對者경어의식
- 6) 절대경어의식

이들은 장면·상황에 따라 경어표현이 바뀔 수 있기에 장면과의 관계가 크다고 본다. 경어의식이란 경어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인식방식, 느끼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경어 그 자체에 대한 파악의 방식을 말한다. 구체화하면 경어를 사용할 때의 장면이나 대상에 대한 판단, 경어표현의 형식이나 말에 대한 감각등을 말한다²⁾.

경어를 사용할 조건에는 내적조건과 외적조건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³⁾. 내적조건이란 언어체계 내부의 제약이어서,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경어요소의 선택에 직접 관계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에는 담화관계의 조건(담화의 청자가 특정의 개인인지, 불특정다수인지)과 문장의 구조에 관한 조건(중속구 속에서의 경어), 단어의 구조(접두어 「お」·「ご」)에 관한 조건으로 나뉘어진다.

외적조건은 경어의 의미의 선택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간관계의 조건과 상황에 관한 조건, 상황에 관한 조건으로 나뉜다. 이러한 내적·외적조건들이 작용하여 경어의 구체적인 작용⁴⁾이 일어나는 것이다.

경어의식에 의한 경어사용 상황이 다양하고 또 시대가 흐름에 따라 일본인들의 언어의

2) 堀内武雄 「現代敬語用法ダイジェスト」 『敬語セミナー 國文學第三十三卷 十五号 改裝版』 學燈社 P.88

3) 南不二男 敬語(岩波新書365) 岩波書店 1987 P.95

4) 南不二男 敬語(岩波新書365) 岩波書店 1987 P.129 大石初太郎의 고찰로서 높임, 거리를 둠, 격식차림, 위엄·품위·경멸·야유, 친애의 작용을 들고 있다.

식도 바뀌기 때문에 경어사용에 있어서 오용이 발생한다.

일본어 경어오용의 유형은 크게 다음의 4종류로 분류된다.

- 1) 경어를 거의 사용하지않음
- 2) 경어를 충분히 사용하지않음
- 3) 경어를 과다하게 사용
- 4) 경어사용의 선택의 잘못(겸양어의 존경어적 또는 정중어적 사용, 존경어의 겸양어적 또는 정중어적 사용)⁵⁾.

일반적인 場面은 永野賢가 말하는 객관적인 사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말할 때의 환경을 만드는 장소나 인간, 전달되어야 할 내용(話材)에 관한 조건에 대해 사용하고 있다. 永野賢는 場面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전달되어야 할 내용(話材)」 「雰圍氣」 「脈絡」의 5가지를 들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5개의 「緊張關係」로서 작용한다⁶⁾고 말한다. 또 場面은 객관적인 事態를 기반으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제각각 따로 구성하는 것이며, 주체적인 입장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어의 사용은 그 사회의 구조적 측면인 인간관계의 제약을 아주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 시대의 인간관계가 만들어내는 의식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관계의 의식이 변하면 場面에서의 경어의 사용의 수용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Ⅲ. 場面別 敬語誤用の 具体例

본고에서는 경어사용의 장면을 「가정」 「학교」 「사회」로 나누고, 「사회」를 다시 「일반 회사」 「방송국」 「백화점 및 가게」 「국회」 「지하철역과 차량안」으로 나누어, 그 場面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하여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의식 및 심리상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Ⅲ.1. 家庭

3.1.1. 呼稱⁷⁾

1) 부부호칭

(1) 남편이 자신의 처를 부를 때

「--さん」, 「--ちゃん」(애칭)(1959.8.3.朝日)

5) 南不二男 敬語(岩波新書365) 岩波書店 1987 P.188

6) 永野賢 『傳達論にもとづく日本語文法の研究』東京堂 1970 P.77

7) 「호칭」오용의 항목에서는 「자기쪽의 존경」항목의 내용과 겹치기도 한다.

(2) 부인이 자신의 남편을 칭할 때

① 일반적으로는 「主人」이다. 남편과 둘만 있을 때는 「健一」의 이름만 부르다가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있을 때는 「健一さん」처럼 「--さん」을 붙인다. (1967.1.24.北海道)(1962.6.16.讀賣)

② 「ほんとうにあなたと言う人は」(1979.10.23.朝日)에서처럼 「あなた」는 심리적인 거리감이 생겼을 때의 호칭이다.

2) 자신의 (시)부모님 …「おとうさんがおっしゃいました」(1953.3.4.朝日)

「主人のお母様でございます」(1978.6.13.東京) (1965.1.26.西日本)

話者が 聽者(외부사람)를 의식해서 낮추어야 하지만 화제속의 인물이 자신의 손위가족이라 이를 의식하여 외부인에 대해 자신의 부모를 「おとうさん」「おかあさん」으로 호칭한다. 이는 「우찌·소또」(内外)의식⁸⁾이 붕괴된 현상이다.

3) 어머니가 남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うちの太郎さんは…」라고 호칭한다.(1987.1.16.朝日) 이는 화자가 남(외부사람) 앞에서 자신의 손아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식에게 「太郎さん」으로 존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 또한 「우찌·소또」의식이 붕괴된 현상으로 「우찌」의 손아래 사람을 존칭하는 것은 확실한 오용인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현상이 품위어화⁹⁾되는 과정이다.

3.1.2. 「あげる」

1) 미화어(동식물에 대해 사용)

「犬にご飯をあげたか」(1957.6.24.朝日)

2) 품위어(자기자식을 높임)

「お乳をあげても飲みません」(1964.6.11.日経)

3.1.3 자기쪽 尊敬

1) 他人(外部의 사람)에 대해서 자기 쪽의 사람(부모님, 남편, 자식)을 尊敬한다.

(1) 부모님 존경

자신의 (시)부모님…「おとうさんがおっしゃいました」(1953.3.4.朝日)

「主人のお母様でございます」(1978.6.13.東京)

(2) 자신의 남편에 대한 존경

「うちの主人がこういわれました」「うちのおとうさんがこうおっしゃったのですが」

8) 内外意識이란 매우 일반적인 요소로서 자기영역(나와바리)의 의식이다. 안증환역(牧野成一著)『空間の言語文化學』 제이앤씨 2001 참조

9) 본 논고에서는 화제의 사향을 통한 대자경어의식이 포함되어진 美化語 丁重語의 여러 어휘를 통괄하여 「품위어」라 칭한다.

(1965.1.26.西日本)

醫師인 남편인 경우에는 「先生」으로 호칭하고 있다.(1964.5.4.毎日)

(3) 자신의 자식에 대한 존경

「うちの子は朝からお熱が出てお乳をあげてものみませんので」(1978.6.13.東京)

「うちの太郎さんは…」(1987.1.16.朝日)

2) 他人(内部의 사람)에 대해서 자신 쪽의 사람인 남편을 높이고 있다.

(1) 남편…며느리가 남편의 家族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칭할 때

「お母様一郎はまだ戻っておりませんが」「お母様一郎さんはまだ戻っておりませんが」의 個人差에 의한 「호칭생략(一郎)」과 「さん붙임(一郎さん)」이 있다.(1978.5.30 東京)

3.1.4. 二重敬語

「お歸りになられました」「おっしゃ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まいりますです」

(1952.8.17.東京).

3.1.5. 謙讓語의 尊敬語化

1) 「どうせいただくなら--のお菓子」「車掌に申し出ください」「あなたならどういたしますか」(1966.6.20.讀賣) 이는 主体와 客体가 바뀐 표현으로 지적되고 있다.

3.1.6. 謙讓語의 品位語化

1) 「えさをあげる」(1975.5.28.毎日) 「いい味よいただいて」¹⁰⁾(1993.5.7.讀賣)

Ⅲ.2. 學校

3.2.1. 呼称

1) 학생의 호칭

(1) 여학생이 여학생을 칭할 때 「きみ」「ぼく」로 칭한다.(1954.1.19.朝日)

(2)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くん」으로 칭한다.(1970.4.2.日経)

2) 선생님

(1) 총장을 대학생이 「--さん」을 붙여서 칭한다.(1950.11.4.朝日)

(2) 교사가 동료교사를 외부사람에게 칭할 때(전화상에서) 「直塚先生はまだおみえになっておりません」(1973.08.27 讀賣)

10) 「いただく」는 겸양어의 존경어화와 겸양어의 품위어화가 나온다. 여기서는 겸양어의 존경어화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해당 신문기사의 내용에 따라 그대로 분류하였다.

3) 아버지

- (1) 학생이 자신의 아버지를 선생님 앞에서 칭할 때, 아버지(자기 쪽의 인물)를 선생님 앞에서 높이고 있다.

「先生、おとうさんはきょうの父兄會には出席できませんとおっしゃいました」

(1957.10.23. 東京タイムズ)

3.2.2. 「お」

「おこんばんは」「おこんにちは」(1954.4.15.朝日)

「お學校」「お教室」「おサイダ」「おチョコ」(1952.5.14.讀賣)

「お」의 과용은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말 표현으로서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계층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3.2.3. 「あげる」

「変數Xに1をいれてあげると」(1992.10.18.讀賣)

3.2.4. 「--させていただく」

「讀ませていただきます」(1984.3.17)(1984.3.29.毎日)

「用事があるので先に歸らせていただきます」(涼解를 구하는 표현)(1993.2.1.讀賣).

「始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お詫びさせていただきます」(涼解의 有無에 關係없이 사용)(1996.11.24.朝日). (1993.9.5.朝日).

3.2.5. 자기쪽 尊敬

- 1) 선생님 앞에서 자기 쪽의 인물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先生、おとうさんはきょうの父兄會には出席できませんとおっしゃいました」

(1965.1.26.西日本)

3.2.6. 二重敬語

- 1) 「お書きになっていらしゃいませ」(1970.1.1.毎日).

3.2.7. 文章속에서의 混亂

- 1) 「先生のご病氣を母からうかがいまして」의 「うかがいまして」는 선생님과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聞かしまして」로 표현하는 것이 바르다.(1970.12.25.朝日).
- 2) 「父が田舎から出て來るんですが先生父にお目にかかってください」(1971.4.26.讀賣)
- 3) 「直塚先生はまだおみえになっておりません」(1973.2.27.西日本)

3.2.8. 謙讓語의 尊敬語化

- 1) 「先生はお忙しいところを參られて」(1972.4.27.毎日) 「どうぞ來月もご出席してください」
(1972.6.28.日経)
- 2) 「父が申しました」(1973.2.27.西日本)

Ⅲ.3. 社 會

3.3.1. 一般會社

3.3.1.1. 呼 称

1) 上사의 호칭

직장상사에 대한 「--さん」의 호칭(1959.4.13.産経).

2) 同僚의 呼称

(1) 職名：公式重視시(1964.9.21.毎日)

(2) 名前：非公式重視시(1964.9.21.毎日).

(3) 「--さん」붙임：

① 會社 内の 對話에서 「--部長」「--課長」이라는 職名을 追放하고 「--さん」으로 부르자(1970.3.27.朝日)

이는 민주화의 의식에서 발생한 호칭의 품위어화이다.

② 외부사람(상사의 가족이나 知人)으로부터의 상사를 찾는 전화일 때는 「課長さん」「部長さん」으로 호칭하는 현상¹¹⁾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도 그 가족 즉,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현상으로 그 결과 자신의 말의 품위유지로 연결되는 것이다.

③ 수직사회의 어려움이나 서먹서먹함을 해소하려고 「さん」붙이기를 한다.(1972.5.20.日経) 이것은 현대인의 인간관계의 애매함이 요인으로 자리잡아 정중한 호칭인 「--さん」으로 별탈없이 호칭하는 의식으로 품위 유지로 이어지는 일면이기도 하다.

(4) 敬意下落의 「あなた」：同年輩나 손아래 女性을 호칭(1974.12.4.讀賣)

3) 他人에게 자신의 친구(과장)를 呼称할 때

「私の友人はある大きなビル經營の總務課長さんだが」(1960.12.29.朝日)

이는 垂直社會의 곤란한 점이나 接연적응 解消(1972.5.20.日経)의 방편으로 보인다¹²⁾

11) 文化廳의 『國語に關する世論調査』1998 P.44

田中章夫 「敬意論議はなぜ起る」 『論集日本語研究9敬語』 有精堂 1969 P.180

12) 연상의 상사를 직함만으로 부르는 사람은 40%이지만 연하에 대해서는 30%로 적게 나타난다.(1987.4.27.日経) 여기서 연하의 상사에의 호칭의 미묘한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3.3.1.2. 「--させていただく」

1) 「休業させていただきます」(1993.2.1.讀賣)

「--させていただきますが會合などで聞かれる」(1967.7.8.産経)

3.3.1.3. 자기쪽 尊敬

1) 전화 물음에 대한 응답 시, 정중하게 물으면 본인 쪽의 사항임에도 정중하게 대답하고 있다.(끌려가는 대답)

(1) 「社長はお留守ですか-はい、お留守です」 「あなたの御意見は-私のご意見は」

(1953.3.4.朝日)

(2) 「どなたをお呼びしましょうか」(1980.3.7.西日本).

2) 동료나 상사의 가족으로부터의 電話나 접수부에서의 面會 時에도 자기 쪽을 높이고 있다.

「--課長さんの奥さんですか」(1961.4.20日経) 「鈴木さんはただいま席空きですが」

(1969.12.12.東京)

3) 자신의 上司를 外部사람에 대해 높인다.

「部長さんはお出かけでお留守です」(1965.1.26.西日本)

「課長はただいま席におりませんのでお歸りになりましたらそうおつたえしておきます」

(1970.1.1.毎日)

3.3.1.4. 二重敬語

1) 「--さんがかぜのためお休みになられたので」(1969.2.18.毎日)

2) 「お伺させていただきます」(1988.7.13.公明)

3.3.1.5. 謙讓語의 품위어화

1) 「お勤めする」 「お休みする」(1979.12.31.今週の日本)

3.3.2. 放送局

3.3.2.1. 호칭

1) 여성 아나운서가 동료 여성 아나운서를 시청자 앞에서 높인다.

「櫻井さんが中國から歸りましたので…」(1965.1.26.西日本)

2) 아나운서가 가수를 시청자 앞에서 높인다.

「--さんに歌っていただきましょう」(1965.8.19.讀賣)

인간관계의 호칭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さん」붙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3) 막연하고 넓은 일반인의 호칭으로 「あなた」가 있다.
「あなたの選ぶベストテン」 「あなたの清き一票」(1979.10.23.朝日)
CM방송에서 「あなた」가 가장 빈도수가 높은 호칭이다(1993.3.17.朝日)
- 4) 방송국의 직원이 자신의 상사를 외부사람 앞에서 높이고 있다.
「部長さんはお出かけでお留守です」(1965.1.26.西日本)

3.3.2.2. 「お」

- 1) TV나 라디오 광고에서 「お」가 過多使用되고 있다.
「お忙しい御出勤前のおひげのお手入れもこの電気カミソリをお使いいただきますとお肌痛めずにお早くきれいにおそりいただけます」(1966.6.15.讀賣)

3.3.2.3. 「あげる」

- 1) TV의 榮養劑의 廣告文에서 過多使用을 지적하고 있다.
「疲れた自分を褒めてあげたい」(1992.10.18.讀賣)
- 2) 젊은 主婦의 말투.
「足を踏んであげるの」(1984.5.9.東京)
- 3) 料理 프로그램의 말투.
「にんじんを切ってあげる」「しおを入れてあげる」(1993.3.12.朝日)

3.3.2.4. 「--させていただく」

- 1) NHK TV나 신문투서의 말투에서 違和感을 느낀다.
「ただ今の歌をお聴かせてもらって...」(44세 주부 愛知縣)(1984.3.17.毎日)
- 2) 廣告文의 표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お求めなさいたいお方はO印はお持ち帰り特価ですので配達は遠慮させていただきますシーズンオフではおもとめやすさ」(1984.3.17.毎日)

3.3.2.5. 자기쪽 尊敬

- 1) 司會者が 視聽者앞에서 出演者を 높인다.
「--さんのお話を聞きましょう」(1964.5.4.毎日)
- 2) NHK의 女性아나운서가 시청자 앞에서 同僚 女性아나운서나 放送局内の 解説委員, 同僚記者를 높인다.
「櫻井さんが中國から歸りましたので...」(1987.1.16.朝日)
「解説委員に伺いました」(1989.11.17.毎日)

「それでは--放送記者にお話をうかがってみましょう」(1965.1.26.西日本)

3.3.2.6. 文章속에서의 混亂

「お求めやすい」(1974.5.27.讀賣)

3.3.2.7. 謙讓語의 尊敬語化

1) 과자가게 선전방송.

「どうせいただくなら--のお菓子」(1966.6.20.讀賣)

2) 겸양어+「れる」: 이중경어에도 해당한다.

(1) 「ご結婚する」「義宮様のご結婚される」(1964.10.22.朝日)

(2) 「陛下がニクソン大統領のところに參られました」(1972.4.27.毎日)

3.3.2.8. 尊敬語의 品位語化

1) 「お宅にお何羽くらいいらっしゃいますの」(1957.9.2.毎日)

「ええまだ(わにが)いらっしゃいます」(1971.10.27.産経)

3.3.3. 百貨店 및 가게

3.3.3.1. 呼稱

1) 가게나 백화점의 종사자

(1) 理髮師 料理師를 「先生」으로 호칭하고 있다(1965.3.22.産経).

(2) 女店員을 「店員さん」으로 호칭하고 있다(1959.8.3.朝日).

(3) 사원이 손님 앞에서 가게 주인을 높이고 있다.

「ご主人さまは留守でございますが」(1965.1.26.西日本).

(4) 가게의 주인이 종업원을 손님 앞에서 높이고 있다.

「あしたトビの方にうかがってみません」(건축설비가게)(1965.1.26.西日本)

「係員のお方73番おねがいます」(1970.1.1.毎日)

2) 손님에 대한 호칭

(1) 迷兒를 「迷子さん(様)」으로 표현하여 높이고 있다(1970.9.4.毎日).

(2) 손님에 대한 호칭에 「お客様」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三越), 불특정다수일 경우에 「あなた」의 호칭이 있다.(1979.10.23.朝日).

3.3.3.2. 「お」

1) 安心할 수 있다(百貨店 店員 22才)(1976.3.30.西日本).

2) 상대방이 정중하면 따라서 정중해진다(百貨店 店員 18才) (1963.2.11.東京).

「私のお話はこれで終わります」(1976.3.30.西日本)

3) 외래어에도 「お」를 붙인다.

「お入學セール」(1994.6.30.朝日) 「おシャンプー」 「おセット」(1952.1.25.讀賣)

3.3.3.3. 「--させていただく」

1) 손님보다 弱者의 입장에서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다.

「本日休業させていただきます」(1953.4.22.朝日)

3.3.3.4. 자기쪽 尊敬

1) 종업원이 가게주인을 손님 앞에서 「ご主人様」으로 표현한다.(1965.1.26.西日本)

2) 손님 앞에서 가게주인이 従業員을 「あしたトビの方にうかがってみません」(1965.1.26.西日本) 「係員のお方73番おねがいます」(1970.1.1.毎日)처럼 높인다.

3.3.3.5. 二重敬語

「まあ奥様おやせになられてウエストなんか60くらいにおなりになられたんじゃございませんこと」(1966.6.20.西日本)

3.3.3.6. 文章속에서의 混亂

「お宅様のお庭にはお美しいお花がおたくさんお咲きでいらっしましてご結構でございませんこと」(1952.12.4.毎日)(멍청한 정중어)

3.3.3.7. 謙讓語의 尊敬語化

「あのお客さま記念品お持ちしましたか」(1972.6.28.日経)(1993.3.23.朝日)

3.3.4. 國會

3.3.4.1. 「--させていただく」

「では開會させていただきます」(1953.11.12.讀賣)

「私もさきがけの代表幹事をさせていただいた者として深く反省を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した」(1996.9.4.朝日)

3.3.4.2. 자기 쪽 존경

國會質疑의 TV중계에서 평대신이 총리대신을 국민(시청자)앞에서 높이고 있다. 「總理

が答辯されました通り」(1977.4.8.讀賣)

3.3.5. 地下鐵驛과 차량 안

3.3.5.1. 呼稱

「一さん」 「お降りの方」(1952.12.4.毎日)(손님에 대한 호칭)

3.3.5.2. 「一させていただく」

「ドアを閉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1993.4.2.朝日)(諒解의 有無와 關係없음)

3.3.5.3 文章속에서의 混亂

「一さんがいらっしゃったら驛長室まで來てください」(1952.12.4.毎日)(명칭한 정중어)

「はい、ご存じです」(1953.3.4.朝日)(손님의 질문에 대한 택시운전수의 끌려가는 대답)

3.3.5.4. 謙讓語의 尊敬語化

1) 「あとから参りました方はうしろに順序よく並んでください」(1987.3.5.日経)

2) 「おくつろぎのところまことにおそれいりますが乗車券,特急券をお示ししてください」

(1987.3.5.日経)

3) 「さああその酒屋さんでうかがってみてください」(1987.3.5.日経)

4) 「一さんおりましたら驛長の事務室まで」(1972.4.27.毎日)

3.3.5.5. 謙讓語의 품위어화(丁寧語化)

「お車が参りました」(1953.11.21.毎日)

IV. 誤用の 要因에 의한 敬語意識

앞장에서, 경어 신문기사의 오용의 지적에 대한 구체 예를 통하여 그 시대 일본인의 경어의식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일본인의 경어오용을 야기하는 경어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크게 형태상의 경어오용의식(주체 객체의 혼란, 경의부족)과 개인의 허용도에 의한 경어혼란의식(겸양어의 품위어화, 「お」의 품위어화, 존경어의 품위어화, 호칭의 품위어화)으로 나눌 수 있었다. 주체 객체의 혼란의 세부 항목으로 겸양어의 존경어화의식, 청자의식(심리적 거리의식), 끌려가는 대답을 들 수 있었다. 경의부족의 세부항목에는 이중경어, 명칭한 정중어를 들 수 있었다. 겸양어의 품위어화의 세부 항목으로는 「あげる」

「いただく」「--させていただく」「お--する」「おる」를 들 수 있었다.

IV.1. 敬語의 形態上의 誤用과 要因分析

4.1.1 主体 客體의 混亂

1) 謙讓語의 尊敬語化現象

- (1) 家庭 ... 「あなたコ-ヒ-いただけません」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めしあがる」로 표현해야 할 것을 「いただく」로 표현하고 있다.
- (2) 學校 ... 「いらっしゃる」「おっしゃる」「お(ご)--になる」로 표현해야 할 것을 「參られる」「申す」「お(ご)--する」로 표현하고 있다.
- (3) 사회 ... 다음의 겸양어가 각 장면에서 존경어로 사용되고 있다.
 - ① 회사 ... 「申される」
 - ② 방송국 ... 「いただく」「いたす」「お(ご)--する+れる」「參る」「うかがう」
 - ③ 백화점, 가게 ... 「お(ご)--する」「參る」
 - ④ 지하철역 및 차량 안 ... 「お(ご)--する」「お(ご)--いたす」「おる」

위의 구체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謙讓語의 尊敬語化現象은 겸양어의 품위어화현상으로 진입되기 전단계로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어 표현되고 있다.

2) 자기쪽 尊敬

- (1) 家庭에서는 타인 앞(소포의식)에서 자신의 시부모나 부모님, 남편, 심지어 자식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시댁 식구 앞에서 남편에 관한 사항을 높이거나 또는 높이지 않거나 하는 心理的인 距離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심리적으로 남편과 시댁식구와의 거리와 남편과 화자인 아내 자신과의 거리문제로서 어느 쪽을 더 가깝게 여겨야 하는지에 의해 문제인 것이다.
- (2) 學校에서는 상대방(聽者)인 선생님 앞에서 話者인 학생의 부모를 높이는 현상이다. 이는 선생님 앞이기에 아주 격식차려 정중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의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 (3) 사회
 - ① 會社에서는 끌려가는 대답과 心理的인 距離관계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 젊은 여 사원이 상사의 가족으로부터 상사를 찾는 전화가 걸려온 경우에 직장상사로서 자신의 「우찌」의 인물이지만, 그 가족과 상사의 거리가 더 가깝게 여겨지기에 경어로 대답하고 있다.
 - ② 방송국 ... 동료기자, 동료여성아나운서, 운영위원을 시청자 앞에서 높이고 있다.
 - ③ 가게 ... 손님 앞에서 가게 주인 종업원을 높이고 있다.
 - ④ 국회 ... 국민 앞에서 자기 쪽의 총리대신을 높이고 있다.

3) 끌려가는 대답

- (1) 학교 ... 전화응답 시, 외부인 앞에서 동료교사, 교장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 (2) 차량 안 ... 택시기사가 손님에 대해서 자신의 사향인데도 존경어로 표현하고 있다.

4.1.2. 敬意不足 意識

1) 二重敬語

무언가 심리적으로 경의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규범으로는 충분한 경어인데도 이중경어를 사용해 버린다. 이는 극히 정중하게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어의 품위어화 현상인 것이다.

- (1) 家庭 ... 「お--になる+れる」「ますですでございます」「おっしゃる+ていらっしゃる」
- (2) 學校 ... 「お--になる+ていらっしゃる」
- (3) 社會 ... ① 會社 : 「お--になる+れる」「お(ご)--させていただく」

2) 文章속에서의 不一致

- (1) 學校에서는 청자인 선생님 앞에서 話題속의 인물로서 자신의 가족을 칭할 때, 존칭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청자인 선생님을 너무 의식하여 격식차린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도 품위어화의 일종인 것이다.
- (2) 會社에서는 「お+わかりです」처럼 동사 앞에 「お」를 붙여서 정중하게 표현하려는 현상도 나오고 있다.

IV.2. 個人的 許容度에 의한 混亂과 要因分析

4.2.1. 謙讓語의 品位語化

1) 「あげる」의 品位語化

- (1) 家庭 ... 타인 앞에서, 즉 청자를 의식하여 동식물에 대하여 품위어로 사용한다든지, 또 親愛의 表現 자기 자식에게도 사용하고 있다.
- (2) 學校 ... 수학시간에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あげる」를 청자의식 내지는 선생님 자신의 品位語化로서 사용하고 있다.

2) 「--させていただく」의 品位語化

- (1) 學校 ... 便利함으로 諒解의 有無에 關係없이 사용하고 있다.
- (2) 社會 ... ① 會社, 방송국, 백화점 및 가게, 국회, 지하철역 : 便利함이나 諒解의 有無에 關係없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여자사원 연수자료에도 취급되고 있다.
② 街頭放送 ... 諒解의 有無에 關係없이 사용하고 있다.

3) 기타

- (1) 家庭 ... 「いただく」등의 품위어화가 나오고 있다.
- (2) 社會 ... ① 會社 : 「お休みする」의 품위어화가 나오고 있다.

4.2.2. 「お」의 品位語化

- (1) 學校, 放送局 ... 규범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까지도 사용하는 「お」의 범람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自己誇示나 품위어의식에서 나오고 있다.
- (2) 百貨店 및 가게 ... 외래어에도 붙이고 있다.

4.2.3 尊敬語의 品位語化

- 1) 放送局 ... 「いらっしゃる」의 品位語化

4.2.4. 呼称의 品位語化

- 1) 學校 ... 학생들의 民主化意識, 女學生의 男性化 現象(男女동권의식), 親愛(親密度重視)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 2) 社會 ... 會社 : 社員의 民主化意識이나 便利함에 의해 「さん」붙이기가 나타나고 있다.

IV. 結 論

本 研究는 敬語의 誤用을 지적한 日本新聞記事의 내용을 분석하여 日本인의 敬語誤用과 그 要因分析을 고찰하였다. 日本인의 敬語誤用을 야기하는 要因으로 크게 形態上의 敬語誤用 意識과 個人的 許容度에 의한 敬語混亂 意識으로 나눌 수 있었고, 形態上의 誤用의 細部項目으로는 主体와 客体의 혼란과 敬意不足 現象의 인식으로 나누었는데, 主体와 客体의 혼란에는 다시 謙讓語의 尊敬語化意識, 상대방(聽者)의식, 「끌려가는 대답」으로 나눈다. 個人的 許容度에 의한 混亂의 要因으로는 謙讓語의 品位語化, 接頭語 「お」의 品位語化, 尊敬語의 品位語化, 呼称의 品位語化로 나눈다. 이는 「お」를 붙이기만 하면 상대방의 행동을 존경하는 表現形式이 된다는 잘못된 敬語意識도 잠재하고 있을 것이고, 客体와 主体를 동시에 높여서, 兩者(청자와 화제속의 인물)에게 실례가 되지 않는 배려이다. 자기의 자식에게도 「さん」을 붙여서 높이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자식을 尊敬하고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品位語의인 용법인 것이다. 자신의 品位를 나타내기 위한 경어표현이다.

家庭에서는 個人的 許容度에 의한 混亂보다는 形態上의 誤用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謙讓語의 尊敬語化意識, 상대방(聽者)을 의식한 心理的 距離, 二重敬語 등은 家庭, 學校, 社會의 場面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것은 現代社會의 特性인 商業主義, 民主主義 社會의 相互尊敬을 基本趣旨로 하여, 現代日本語의 敬語意識에서 「品位語」가 中樞的인 求心点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品位語」는 話題의 人物이 상대방(청자)에게 가까운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쪽에 가까운 지를 굳이 판단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경어를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널리 사용하는 것이다.

敬語法의 誤用 즉, 謙讓語의 尊敬語化에서는 존경할 상대방이 명확할 때는 尊敬語이지만, 존경할 상대방이 曖昧할 때는 話者가 品位維持를 위한 「品位語化」로 발전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參考文獻】

- 1950年代부터 1990年代까지의 日本의 主要日刊紙(자료)
- 石野博史(1985) 「敬語の亂れ」 『ことばシリーズ24續敬語』 文化廳 PP.44-54
- 井上史雄(1983) 「誤用の社會學」 『月刊言語』Vol.12 No.3 大修館書店 PP. 65-66
- _____ (1989) 『ことばづかい新風景』 秋山叢書 P.114
- 岩淵悅太郎(1985) 「今後の敬語」 『ことばシリーズ1敬語』 文化廳 PP.64-65
- 大石初太郎(1976) 「敬語が正しく使えますか」 『言語生活』295 筑摩書房 PP.45-46
- _____ (1980) 『敬語』 筑摩書房 PP.26-132
- _____ (1983) 『新しい敬語』 小學館 P.26
- 奥山益郎 (1983) 「敬語の正用と誤用」 『月刊言語』Vol.12 No.3 大修館書店 P.31
- 菊地康人 (1997) 「変わり行くさせていただく」 『月刊言語』Vol.26 No.6 大修館書店 PP.40-41
- _____ (1998) 『敬語再入門』 丸善ライブラリー PP.54-59
- 玉村文郎 (1997) 『日本語學を學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史 PP.186-187
- 辻村敏樹 (1967) 『現代の敬語』 共文社 P.216
- _____ (1976) 「現代語-敬語」 『日本語教育』 早大出版 P.3
- 南不二男 (1987) 『敬語』 岩波新書 PP.147-206
- 渡辺實(1978) 「敬語の體系」 『敬語』 有精堂 PP.120-121

要 旨

この研究は敬語の誤用を指摘した新聞記事の内容を分析して日本人の敬語意識を研究しようとするのである。日本人の敬語の誤用を起こす要因の類型を形態上の敬語の誤用の要因と個人の許容の差による敬語の混亂の要因に分けた。形態上の敬語の誤用の要因の細部項目には主体・客体の混亂と敬意の不足に細分し、主体・客体の混亂には謙讓語の尊敬語化意識、聽者(聞き手)意識、尊敬語で訪ねられたとき返事をする人も尊敬語で返事をする現象に分ける。

次に個人の許容の差による混亂の要因には謙讓語の品位語化、接頭語「お」の品位語化、尊敬語の品位語化、呼称の品位語化に分ける。「お」をつけさえすれば相手の行動を尊敬する表現形式になるといった誤った意識もあるだろうが客体・主体をともにあがめ、両者に失礼とならないための配慮であり自分の子供にも「うちの太郎さんは…」のように「さん」をつけているがこれは自分の子供を尊敬しているというより品位語的な用法であり自己の品位を表すためのものである。

この要因らが家庭、學校、社會の場面で、どのように表われているかを考察した。家庭では個人の許容の差による混亂より形態上の誤用がもっと多く表われていた。學校と社會では兩方とも多く表われていた。謙讓語の尊敬語化意識、聽者を意識した心理的距離、二重敬語などは家庭、學校、社會の場面で多く發生していた。

これは現代の社會の特性である商業主義、民主主義の社會の相互尊敬を基本的趣旨として現代日本語の敬語意識から「品位語」が中樞的な求心点となっていると見ることがができる。品位語は話題の人物が聞き手に近いかそれとも自分側に近いのかを判断しなくとも簡単に敬語を使えるという手軽さのゆえ一層廣がっていつてい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 場面、敬語意識、敬語誤用(混亂)要因、形態上の誤用、心理的距離、 個人の許容の差
--

투 고 : 2003. 11. 28 2차 심사 : 2003. 12. 19 3차 심사 : 2004. 1. 8
--

住 所 : (540-742) 전남 순천시 매곡동 315 순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61-750-3453
 E-mail : haja@sunchon.ac.kr